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융합연구

김은주^{1*}, 신해진^{2,3}

¹전북과학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²전남과학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³조선대학교 대학원 박사수료

Convergence Study about Factors on Problem Behaviors of Male Students in the Second Grade of Middle School

Eun-Ju Kim^{1*}, Hae-Jin Shin^{2,3}

¹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Professor, Joenbuk Science College

²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Professor, Chunnam Techno University

³Department of Nursing Doctoral Course Completion, Graduate School, Chosun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대상은 J도 Y시에 위치한 중학교의 중학생 116명이었으며, 연구도구로는 일반적 특성과 한국형 소아우울척도, 학업 스트레스 검사, 청소년 문제행동 질문지를 포함한 구조화된 설문지가 사용되었다. 자료수집은 17년 9월부터 10월까지 이루어졌으며, 자료분석을 위해 기술통계,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그리고 multiple regression이 사용되었다. 본 연구결과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의 문제행동에 대한 주요 예측요인은 성적, 부모와의 관계, 친구관계임이 확인되었다. 이는 중학교 2학년 남학생들의 문제행동과 관련하여 관계적인 측면의 중요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의 건강한 인간관계의 경험 및 형성을 위한 지도방안, 교육방침, 프로그램 개발 등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제어 : 중학교 2학년 남학생, 우울, 학업 스트레스, 문제행동, 부모와의 관계, 친구관계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depression, study stress, adolescents' problem behavior in middle school students. A cross-sectional survey was conducted. 116 participants were selected from middle school in Y city, J area. A structured questionnaires were used as a study instrument which included general characteristics, 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CDI), study stress and adolescents' problem behavior. Descriptive statistics,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 were used for analysis. the result was that grade level, relation with parents and Friends were major predictors of problem behaviors of male students in the second grade of middle school. As a result of this study, it is to suggest the necessity of guidance, education policy, and program development for the experience and formation of healthy human relationships among adolescents.

Key Words : Male Students in the Second Grade of Middle School , Depression, Study Stress, Adolescents' Problem Behavior, Relation with Parents, Relation with Friends

1. 서론

청소년기는 신체적, 정신적 및 정서적인 변화가 급격히 일어나며 아동에서 성인으로 성장하는 과도기적 단계이다[1]. 특히 학업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초등학교

1.1 필요성

*Corresponding Author : Eun-Ju Kim (ejkim3223@jbsc.ac.kr)

Received August 10, 2018

Accepted October 20, 2018

Revised September 20, 2018

Published October 28, 2018

시기와 대학입학이라는 큰 도전을 앞두고 되는 고등학생 시기의 중간단계라고 할 수 있는 중학생 시기는 인지적·정서적 변화와 더불어, 학업에 대한 본격적인 스트레스가 시작됨으로 인해 다양한 시행착오를 거치게 된다[2]. 이러한 시행착오는 청소년기에 정상적으로 나타나는 일시적인 발달양상인 경우도 있으나, 이후 심리사회적 부적응을 초래하고 더 나아가 사회적 폐쇄로까지 이어지는 문제행동이 되기도 한다[3].

문제행동에 대한 개념은 학문분야와 학자들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심리학이나 정신의학에서는 부적응 행동, 이상행동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사회병리학과 교육학에서는 반사회적 행동, 요선도 행동 또는 비행행동 등의 용어를 사용한다[4]. Joeng 등에 따르면, 문제행동이란 생활해 나가며 나타나는 반응이 국가의 법을 위배하는 범죄, 상식적인 가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이상행동,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부적응 행동 등의 사회적 문제로 드러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특정한 시기에 국한되지 않고 전 생애에 걸쳐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 개인 현상 중 하나이다[1]. 즉 청소년의 문제행동이란 청소년 자신이 속한 사회의 일반적인 가치기준에 부합되지 못하는 부적응적인 모습 혹은 규범과 법을 어기는 비행/범죄행동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청소년 문제행동에 대하여 Kim 등은 청소년문제유형분류체계연구를 통해 호소문제, 문제환경, 관계유형, 발달과업 등의 청소년 상담문제유형을 분류하여, 내담자 상담 시 참고할 수 있는 지침을 개발하여 제시하였고[5], Lee 등은 기초연구를 통해 인터넷중독, 섭식문제, 부모관계문제, 또래관계문제, 교사관계문제, 학업주의문제, 진로문제, 공격행동, 지위비행, 범죄성비행, 충동과다행동 등 11개의 청소년 문제행동영역을 추출하여 청소년 행동 평가척도 청소년용(ABAS-S)을 개발하기도 하였다[6]. 이는 청소년 문제행동이라는 용어가 좁은 의미에서의 비행, 이탈의 개념에서 넓은 의미에서의 학업, 진로와 같은 발달과업 수행의 어려움, 부적응 등의 개념으로까지 확장되어 사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최근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화 되고 있는 것은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부산 여중생 집단폭력 등 청소년의 비행/범죄행동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청소년의 전반적인 생활에서의 문제행동영역을 기준으로 하는 청소년행동 평가척도(ABAS-S)의 11개의 영역을 기준으로 2004년과 2014년의 청소년 문제행동의 경험정도를 비교하였을

때, 오히려 2014년의 정도가 더 낮음을 알 수 있었으나[7], 청소년 비행/범죄행동의 경우는 그 강도와 저연령화가 심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8].

대검찰청의 2017 범죄분석에 따르면, 지난 10년간의 소년범죄 중 재산범죄, 강력범죄(흉악), 강력범죄(폭력) 등의 발생비율이 모두 증가하였으며, 특히 살인, 강도, 방화, 강간 등의 범죄를 의미하는 강력범죄(흉악)의 경우, 건수(35.7건) 자체는 207.7건인 강력범죄(폭력)보다 낮으나 발생비율이 108.7%로 급격히 상승하였는데[9], 이는 청소년 범죄행동의 정도와 강도가 심화되고 있음을 뒷받침한다. 뿐만 아니라, 18세 이하의 미성년범죄자(76,000명) 중 14~15세에 해당하는 인원이 무려 51.1% (38,905명)에 이르고, 특히 14세(8,530명)에서 15세 (17,589명)로 넘어가는 시기에 그 인원이 급격히 상승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중학교 2학년에 해당하는 15세의 문제행동에 대한 연구가 특히 필요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학생과 관련된 청소년 문제행동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성별에 따른 문제행동 경험 정도의 차이나 실태조사[3,6], 부모 혹은 교사와의 관계와 문제행동 간의 상관관계연구[4,10], 도덕적 판단력 혹은 문제해결능력과 같은 인지능력과 문제행동 간의 상관관계연구[1,11], 문제행동, 정서행동의 문제가 학교생활이나 대인관계 등에 미치는 영향[2,12] 등으로 비교적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우울이나 학업스트레스와 같은 주요 사회심리학적 요인과 문제행동과의 상관관계를 보고자 하는 연구는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특히 청소년의 비행/범죄행동은 우울·불안·학업스트레스·가족관계 및 교우관계와 같은 심리적·환경적인 요인의 영향을 받는데, 우리나라와 같이 가치관의 급격한 변화가 생기는 경우, 청소년들은 혼란스러운 변화의 영향으로, 적절한 성장과 발달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1]. Jin 등에 따르면 청소년 비행의 발생요인은 실제로 인구사회학적, 개인적 그리고 청소년이 속해있는 가정을 포함한 환경적 요인 등으로 크게 구분되며, 이 요인들은 서로 복잡하고 다양한 관련성을 보인다[13]. Calson & Castwell은 청소년의 비행/범죄행동과 같은 반사회적 행동을 두고 '가면 우울증'이라 제시할 정도로 비행과 우울 간에는 유의미한 관계가 있으므로[14], 청소년의 우울이 비행행동으로 표출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Chiles 등 역시 비행청소년 집단의 23%가 우울증을 포함한 내면화된 정신건강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15].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중학교에서 하루 8시간 이상의 시간을 보내며, 학업부담감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중학생의 경우, 학교환경이나 학업스트레스가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1].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 문제행동이 규범적/법률적으로 문제 되는 비행행동이라는 개념에 근거하여[4], 비행/범죄행위가 급격히 상승하는 중학교 2학년(15세)남학생을 대상으로 우울, 학업스트레스 및 문제행동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고,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아보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의 우울, 학업적 스트레스, 문제행동에 대해 알아보는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문제행동 정도를 알아본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우울, 학업 스트레스 및 문제행동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본다.
3. 대상자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본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의 우울, 학업적 스트레스와 문제행동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2.2 연구대상

연구대상자는 J도 Y시에 소재한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남학생에게 연구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로 선정하였으며, 자료수집은 2017년 9월부터 10월까지 이루어졌다. 우울, 학업스트레스, 문제행동 등에 해당하는 설문지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피해의식이나 충동조절의 어려움, 우울감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 등을 느낄 수 있으므로 이럴 경우 바로 연구 참여를 중단하도록 설문작성 전에 충분히 설명하였다. 또한 설문조사 결과 우울, 학업스트레스, 문제행동 등의 결과수

치에서 치료 혹은 지도를 요하는 결과가 발견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주의 깊게 관찰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 수는 116명으로 G*Power 3.1.9.2 program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위한 효과 크기 0.35(Large), 검정력 $1-\beta=0.95$, 유의수준 $\alpha=0.05$, 관련변인 수 8개로 계산하였을 경우 필요한 최소인원은 74명이었으며 따라서 본 연구의 표본 수는 최소 표본의 수를 충족하였다.

2.3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일반적 특성 변수로는 가족유형, 경제적 상황, 성적 수준, 부모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등을 조사하였다. 그 외 변수로는 우울척도, 학업 스트레스, 청소년 문제행동 질문지를 포함한 구조화된 설문지가 사용되었으며, 설문지는 연구대상자의 자기기입 방식으로 작성되었다.

2.3.1 우울척도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의 우울을 측정하기 위하여 Kovacs(1983)가 제작한 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CDI)를 Cho & Lee가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수정·보완한 한국형 소아우울척도를 사용하였다[16,17]. 이 척도는 우울정서 5문항, 행동장애 7문항, 흥미상실 7문항, 자기비하 4문항, 생리적 증상 4문항의 총 2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하여 0-2점까지의 3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의 정도가 심한 것을 나타낸다.

Cho & Lee의 연구에서 측정된 도구의 내적일관성 상관관계수는 .87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88 이었다.

2.3.2 학업스트레스 검사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의 학업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하여 Cho의 생활 스트레스 척도에서 학업관련 스트레스 요인을 발췌하여 수정·보완한 Kang의 도구를 사용하였다[18,19]. 이 척도는 시험·성적 스트레스 4문항, 과제 스트레스 4문항, 학습내용 스트레스 3문항, 학원 스트레스 4문항의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항상 그렇다' 5점까지의 Likert 5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 스트레스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Kang의 연구에서 측정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83 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93 이었다.

2.3.3 청소년 문제행동 질문지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의 문제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한국청소년개발원의 전국청소년문제행동 실태조사연구를 Kwon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4]. 이 도구는 유희풍속형 8문항, 권위반항형 12문항, 폭력절도형 8문항, 도피형 2문항의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하여 '전혀 없다', '1~2번 있다', '3~4번 있다', '5~6번 있다', '7번 이상'까지의 5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행동이 많은 것을 나타낸다.

Kwon의 연구에서 측정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68~.73 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91 이었다.

2.4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PASW(Predictive Analytics SoftWare) static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를 사용하였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 학업 스트레스, 문제행동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independent t-test와 one-way ANOVA, 사후검정은 scheffe test로 분석하였다.
3. 대상자의 우울, 학업 스트레스, 문제행동 간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구하였다.
4. 대상자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일반적 특성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총 116명의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가족유형은 양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 106명(91.4%), 한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 10명(8.6%)로 나타났다. 경제수준은 '하'라고 응답한 사람이 70명(60.3%)으로 가장 많았고 '중' 39명(33.6%), '상' 7명

(6.0%) 순으로 나타났다.

성적수준은 '중'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66명(56.9%),으로 가장 많았고 '하' 34명(29.3%), '상' 16명(13.8%)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와의 관계는 '중간'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53명(45.7%)로 가장 많았으며, '좋지 않다' 34명(29.3%) '좋다' 31명(26.7%) 순으로 나타났다.

친구관계는 '중간'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60명(51.7%)로 가장 많았으며, '좋다' 36명(31.0%), '좋지 않다' 20명(17.2%)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1 참고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 of Participants

(n=116)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Family Type	Two Parents	106(91.4)
	Single Parent	10(8.6)
Economic Status	High	7(6.0)
	Moderate	39(33.6)
	Poor	70(60.3)
Grade Level	High	16(13.8)
	Moderate	66(56.9)
	Poor	34(29.3)
Relation with Parents	good	31(26.7)
	Moderate	53(45.7)
	bad	34(29.3)
Relation with friends	good	36(31.0)
	Moderate	60(51.7)
	bad	20(17.2)

3.2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의 우울, 학업스트레스 및 문제행동정도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의 우울과 학업스트레스, 문제행동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우울이 $1.03 \pm .13$, 학업적 스트레스 $2.80 \pm .82$, 문제행동은 $.46 \pm .37$ 로 나타났다. Table 2 참고

Table 2. The Score of 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Study Stress, and Problem Behavior

(n=116)

Variables	M \pm SD	Range
study Stress	2.80 \pm .82	1-5
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1.03 \pm .13	0-2
adolescents' Problem behavior	.46 \pm .37	1-5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문제행동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문제행동 차이를 살펴본 결과 가족유형 ($t=-2.138, p=.035$), 성적($F=9.763, p=.000$), 부모와의 관계($F=13.924, p=.000$), 친구관계($F=7.694, 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수준 ($F=1.291, p=.279$)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참고

Table 3. Differences of the Problem Behavior by Characteristics (n=116)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M±SD	t or F	p
Family Type	Two Parents	106	.43±.37	-2.138	.035*
	Single Parent	10	.69±.21		
Economic status	High	7	.24±.14	1.291	.279
	Moderate	39	.47±.49		
	Poor	70	.47±.29		
Grade Level	High	16	.32±.21	9.763	.000**
	Moderate	66	.38±.22		
	Poor	34	.67±.53		
Relation with Parents	good	31	.25±.18	13.924	.000**
	Moderate	53	.43±.26		
	bad	32	.69±.50		
Relation with friends	good	36	.34±.29	7.694	.001**
	Moderate	60	.44±.23		
	bad	20	.72±.63		

3.4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의 일반적 특성, 우울, 학업스트레스 및 문제행동과의 상관관계

일반적 특성 중 문제행동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가족유형, 성적, 부모와의 관계, 친구관계와 우울, 학업스트레스, 문제행동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족유형($r=.310, p=.002$), 부모와의 관계 ($r=.291, p=.002$)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모와의 관계($r=.288, p=.002$), 친구관계($r=.544, p<.001$)로 나타났으며, 학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모와의 관계($r=.258, p=.005$), 우울($r=.207, p=.026$)로 나타났다.

문제행동과 가족유형($r=.196, p=.035$), 성적($r=.353, p<.001$), 부모와의 관계($r=.442, p<.001$), 친구관계($r=.325, p<.001$)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한부모 가족일수록, 성적이 나쁠수록, 부모와의 관계가 나쁠수록, 친구관계가 나쁠수록 문제행동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참고

Table 4. Correlations between 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Study Stress, and Problem Behavior (n=116)

Characteristics	Family Type	Grade Level	Relation with Parents	Relation with Friends	CDI†	Study Stress	APB‡
Family Type	1	.310 .001	.163 .080	.107 .252	.170 .067	-.037 .695	.196 .035
Grade Level		1	.291 .002	.188 .043	.179 .055	.037 .694	.353 .000
Relation with Parents			1	.329 .000	.288 .002	.258 .005	.442 .000
Relation with Friends				1	.544 .000	.142 .128	.325 .000
CDI†					1	.207 .026	.176 .058
Study Stress						1	.037 .690
APB‡							1

† CDI: Children's Depression
‡ APB: adolescents' Problem behavior

3.5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의 문제행동과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우울과 학업스트레스가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제외하고 상관관계가 있는 요인 가족유형, 성적, 부모와의 관계, 친구관계 총 4개 변수를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4개의 변수가 문제행동을 25.6%정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회귀모형을 검정한 결과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10.899, p<.001$).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수정된 결정계수(R^2)은 .256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부모와의 관계($p=.001$), 성적수준($p=.019$), 친구관계($p=.042$) 순으로 문제행동에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유형($p=.472$)은 회귀계수가 유의하지 않으므로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 참고

Table 5. Influencing Factors on Problem Behavior

Variable	B	SE	β	t	p
Family Type	.081	.112	.061	.722	.472
Grade Level	.121	.051	.209	2.383	.019
Relation with Parents	.157	.044	.313	3.558	.001
Relation with friends	.096	.047	.176	2.058	.042
Adjusted $R^2=.256, F=10.899, p<.001$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 다중공선성, 독립성, 정규성, 등분산성의 조건을 검정하였다. 다중공선성을 검증한 결과 공차한계가 .834~.897으로 0.1이상으로 나타났고,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도 1.115~1.199으로 10을 넘지 않았다. 상대지수는 7.034~12.993으로 30을 넘지 않아서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제외하였다. 또한 오차의 자기상관(독립성)을 검정한 결과 Durbin-Watson 통계량이 1.778로 2에 가까워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잔차 분석 결과 표준화된 잔차의 범위가 -1.960~6.896으로 등분산성을 만족하였고 정규성도 확인되었다.

4. 논의 및 제언

본 연구의 결과,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의 학업스트레스는 부모와의 관계, 우울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의 성적은 가족의 유형과 부모와의 관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특히 부모와의 관계에 따라 학업스트레스와 성적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의 학업적 측면에서 부모와의 관계가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학업스트레스는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의 우울에 따라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우울은 부모와의 관계에 따라서도 마찬가지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학업뿐만 아니라, 정서적 측면에 있어서도 부모와의 관계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초기 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주위 환경에 대한 통제 능력에 비해, 독립하고자 하는 욕구가 더 커짐으로 인해 겪게 되는 스트레스에 대한 완충작용을 부모와의 친밀한 정서적 유대관계가 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20]. Kim 등에 따르면 특히 남자 중학생의 경우 스트레스 상황에서 사회적 지지에 따른 대처를 선호하며, 이는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본 연구의 결과와도 일치한다[21].

본 연구에서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의 문제행동은 가족 유형, 성적, 부모와의 관계, 친구관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이 변수들 중 가족유형은 문제행동에 대한 설명력이 낮아, 영향력이 없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가족유형을 제외한 성적, 부모와의 관계, 친구관계는 모두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한

부모 혹은 양부모라는 가족의 형태는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의 문제행동에 대한 설명력이 낮았던 반면, 부모와의 직접적인 관계가 청소년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는 것은 자아정체감을 확립해 나가고, 본격적인 학업성취를 이루게 되는 중학교 2학년 남학생들에게는 외면적으로 드러나는 가족의 모습보다, 그 내부의 관계적인 측면과 관계를 통해 얻게 되는 지지적인 측면이 더욱 중요함을 의미한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부모와의 관계가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결과는 부모의 신체·정서학대가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 등의 변수를 포함하는 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22], 부모의 지지와 수용이 높은 초기 청소년일수록 문제행동이 적다는 연구[23], 가족관계가 남녀 청소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24] 등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성적과 친구관계 역시 청소년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이와 같은 결과는 중학생의 문제행동이 학교생활과 친구만족을 포함하는 학교생활 적응과 관련되어 있다는 연구[2], 가족갈등, 비행친구, 또래동조성과 같은 학교요인이 청소년의 비행행동과 관련되어 있다는 연구[13], 친구관계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문제행동이 적었다는 연구[23,24], 친구관계가 남녀 청소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25-27] 등과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신체적·정신적·정서적으로 자아를 확립해나가는 청소년 시기의 부적응적인 모습이라 하였을 때,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의 건강한 자아 확립은 청소년 비행·문제행동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 결과,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의 자아확립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소는 부모관계를 포함하는 자신을 둘러싼 인간관계라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중학교 2학년 남학생들이 건강한 인간관계를 경험함으로써 건강한 자아를 확립하고 더 나아가 건강한 성인이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중학생의 건강한 인간관계의 경험 및 형성을 위한 지도방안, 교육방침, 프로그램 개발 등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참여자는 특정지역의 남학생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전체 중학생에게 일반화시키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추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의 문제행동에 대한 연구였으나, 본 연구의 결과, 부모와의

관계가 우울과 학업스트레스, 문제행동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와 관련된 매개효과 등, 후속연구의 필요성을 제언하고자 한다.

REFERENCES

- [1] J. H. Jeong & H. J. Lee. (2015).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alizing Problems and Juvenile Delinquency in Middle School Students: Moderating Effects of Moral Judgment.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2(3), 261-286.
- [2] T. S. Lee. (2013). The Effect of Middle School Students Problem behaviors on School Life Adjustment.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3(3), 345-360.
- [3] H. Y. Lee, & H. W. Kim. (2011). Present Conditions and Characteristics of Problem Behaviors according to the Significant Level among Male and Female adolescents. *Journal of Youth Welfare*, 13(1), 163-188.
- [4] J. Y. Kwon. (2005). *A Study on the Relationship of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Emotion and Adolescents' Problem Behaviors*. Master's Thesis. Women's University, Seoul.
- [5] B. S. Kim, M. W. Lee, D. J. Myeong, & M. K. Lee. (1998). *Study on Classification System of Youth Problems V (Comprehensive)*. Korean Youth Counselling & Welfare(existing), Plaza for Youth Dialogue Foundation). Busan.
- [6] H. G. Lee, H. S. Sin, & G. S. Lee. (2003). A Preliminary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he Adolescent Problem Behavior Rating Scale: Analyses of the Adolescent Self-Report Data.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 10(3), 105-132.
- [7] H. S. Shin, H. G. Lee, & K. S. Lee. (2017). Difference in Korean Youth Problem between the Years of 2004 and 2014. *Journal of Youth Welfare*, 19(4), 25-55. <http://dx.doi.org/10.19034/KAYW.2017.19.4.02>
- [8]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2017). *Korean Police Crime Statistics in 2016*.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Seoul.
- [9] Supreme Prosecutors' Office. (2017). *2017 Analytical Statistics on Crime*. Supreme Prosecutors' Office, Seoul.
- [10] M. S. Jang, & J. H. Kim. (2014). Research on the Perception of Middle School Teachers about Students' Problem Behavior. *Journal of Emotional & Behavioral Disorders*, 30(4), 213-236.
- [11] D. H. Jung, & J. K. Park. (2017). The Effects of Early Maladaptive Schemas and Problem-Solving Ability on Adolescents' Problem Behaviors. *Cognitive Behavior Therapy in Korea*, 17(1), 123-139.
- [12] K. H. Lee, & M. O. Song. (2017). The Influence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of Middle School Students have on the School Refusal Tendency : Focusing on the Mediator Variables - Relationships with Parents, Peer Groups and Teachers. *The Korea Contents Society*, 17(3), 1-14. <https://doi.org/10.5392/JKCA.2017.17.03.001>
- [13] H. M. Jin, & S. W. Bae. (2012). A meta-analysis on the variables related with juvenile delinquency.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14(2), 193-221.
- [14] G. A. Calson, & D. P. Castwell. (1980). Unmasking masked depression in children and adolescent.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37(4), 445-449. <http://dx.doi.org/10.1176/ajp.137.4.445>
- [15] J. Chiles, M. Miller, & G. Cox. (1980). Depression in an adolescent delinquent population.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37(10), 1179-1184. <https://doi.org/10.1001/archpsyc.1980.01780230097015>
- [16] M. Kovacs. (1982). *The 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A Self-rating depression scale for school-aged youngsters*.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Pittsbergh, Pittsbergh.
- [17] S. C. Cho, & Y. S. Lee. (1990). Development of the Korean form of the Kovacs' 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Journal of the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29(4), 934-956.
- [18] B. H. Cho. (2006). Development of Daily Hassles scale and Daily Hassles Coping Behaviors Scale for Elementary School Children. *The Journal of Child Education*, 15(3), 5-21.
- [19] M. J. Kang. (2008). *Cognitive Behavioral Study Stress Coping Training for Elementary School Children: Effects on Study Stress and Academic Self-Concept*. Master's Thesis, Go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Gongju.
- [20] J. E. Ha. (2015). The Effects of Middle School Students' Academic Stress on Suicidal Ideation: Mediating Effect of Parent Attachment and Depression. *Korean Society For The Emotional & Behavioral Disorders*, 31(1), 116-135.
- [21] J. H. Kim, S. B. Kim, & I. K. Jung. (2014). The mediating effect of stress coping strategi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stress and the school adjustment in Korean adolescents. *study on korean*

youth, 25(4), 241-269.

- [22] H. K. Park, & J. H. Heo. (2016). The Effect Child Abuse has on Emotional Behavioral Problems of the Youth: Focusing on the mediation effect of peer relationship. *Journal of School Social Work*, 36, 23-46.
- [23] S. M. Bae. (2016). Association among parent-child relationship, peer relationship, material-oriented attitude and problem behavior of early adolescent.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3(3), 503-522.
- [24] M. S. Oh. (2015). A study on the Effects of Parenting Attitudes on School Adjustment in Middle School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6(2), 197-203.
<http://dx.doi.org/10.15207/JKCS.2015.6.4.197>
- [25] M. Y. Kim, Y. J. Cho, & B. K. Park. (2012). The Effects of Relationship with Family, Teachers, and Friends on Adolescents' Problem Behaviors. *Journal of School Social Work*, 22, 49-77.
- [26] T. K. Hyun. (2018). A Study on the Effects of Early Adolescents' Developmental Environment on their Delinquent behavior :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s of Media Environment.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9(4), 271-283.
<https://doi.org/10.15207/JKCS.2018.9.4.271>
- [27] O. S. Kim. (2018). The Effects of Maltreatment By Parents On Teenagers' Depression: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s of Social Withdrawal and Cell Phone Dependency.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9(1), 213-221. <https://doi.org/10.15207/JKCS.2018.9.1.21>

김 은 주(Kim, Eun Ju)

[정회원]



- 2005년 8월 : 전북대학교 보건대학원보건관리학과 (보건학석사)
- 2016년 8월 : 대전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3년 3월 ~ 현재 : 전북과학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아동간호학, 노인간호학, 시뮬레이션, 정신간호학

· E-Mail : ejkim3223@jbsc.ac.kr

신 해 진(Shin, Hae Jin)

[정회원]



- 2006년 2월 : 조선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4년 8월 : 조선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수료)
- 2014년 4월 ~ 2017년 2월 : 전북과학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2017년 3월 ~ 현재 : 전남과학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정신간호학, 간호교육

· E-Mail : tjmissing@naver.com